

# 포항시, 30개사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첫 발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출범식  
(㈜협스 등 5개사와 MOU 체결  
4만여㎡ 부지에 1150억 투자



포항시는 지난 15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항시

포항시는 지난 15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과 시험·평가 장비 사용 기업 등으로 구성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두산퓨얼셀, SK에코플랜트, 협스 등 협의체 가입 기업 30개사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안종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실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포항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신경종 포항테크노파크 수소클러스터 추진단장은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현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입주 예상 시기, 구축 장비 목록 등을 공개했다.

이후 클러스터 입주 의향을 가장 먼저 밝힌 (주)협스, (주)에너지엔퓨얼, (주)에프씨아이 등을 포함한 5개 사에서 포항시, 경북도와 총 4만984㎡ 부지에 1150억원을 투자, 약 6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시는 향후 기업 집적화 유망 지역을 요건으로 하는 수소특화단지 유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는 향후 신산업 분야인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건의하고 공동 국책사업을 발굴해, 수소 분야 선도기업과 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동반 성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립회원사로 두산퓨얼셀, 미코파워, 협스, 에프씨아이 등 연료전지 분야 선도기업과 관련 중소기업까지 총 30개 사가 가입했으며, 향후 회원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협의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포항 특화형 수소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K-수소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지역기업이 앞으로 포항시를 넘어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내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활성화 지원, 수소 연료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협의체 회원사만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양시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광양시는 시민들 대상 시정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시정에 접목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방안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방안 ▲매화축제 수익창출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 시민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4개의 주제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15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3주간이며,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부산시설공

#### 장애인의 날 맞아 보라색 점등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의 주요 상징물이 보라빛으로 물든다.

부산시설공단은 2024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19일 오후 8시~9시 1시간 동안 광안대교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의 경관 조명 전체를 보라색으로 점등하는 '#WeThe15'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WeThe15은 '우리가 바로 15%'라는 뜻으로 전 세계 약 80억 인구의 15%인 12억 장애인에 대한 차별 종식과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지구촌 인권 운동으로 한국에선 2022년 처음 시작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 고창군,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 선정 종합테마파크 등 서해안 개발 탄력

인구감소지역 지원프로젝트 일환  
관광기금 융자우대 등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로 선정되면서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서해안지역 관광개발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등 민자유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혜택(관광기금 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연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후보 대상지로

는 전국 7개 시·군이 포함됐다.

지정요건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 정도로 줄이고, 관광단지 필수 시설도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을 갖추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승인 권한역시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주)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엔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주변 부지와 관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진행된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 우호도시 교류 협정 체결식. /뉴시스

## 경북도, 中 랴오닝성과 우호도시 협정

이철우 도지사, 리러청 성장 부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교류 방안을 계속 논의해오면서 우호교류 격상에 의견을 같이 해 이번 이 지사의 방문이 이뤄졌다.

이날 협정은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위주로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두 지역의 교류는 지난 2019년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핵심 지역으로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역내총생산(GRD P)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랴오닝성 다렌시에 있는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또 동북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위해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6개국 81개 회원단체) 의장국으로 지난해 10월 선출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울산시, 해오름동맹과 36개 사업 추진

'2024 도시발전 시행계획' 수립

울산시는 수도권과 상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은 경제·산업·해양, 교통기반(인프라),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 체계 및 제도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단일 경제권 형성 ▲초광역 교통망 연계 ▲기능적·물리적 관광 연계성 강화 ▲재난·사고 공

동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지능형(스마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분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광역 공동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해오름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생활권역으로 묶인 울산·포항·경주 3개 도시가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부산시, 복합재난 해양사고 대응 훈련

해양경찰서 등 12개 기관과 합동

부산시는 16일 오후 1시 부산항대교 앞 해상 일원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남해지방해경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 사고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일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이다. 이번 훈련은 세월호 참사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해상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훈련 주관은 시와 해경이 공동으로 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구조협회부산지부, 중구 보건소 등 1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가상의 여객선 안전호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던 중 원인 미상의 동력 상실에 따라 조타 불능 상태로 부산항대교 교각과 충돌 후 표류하게 되고, 표류자 구조와 선박화재 진압 등에 나서는 복합적인 재난 상황을 설정해 훈련의 실제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 울릉군

#### '독도 그리고 해녀' 공동기획전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은 2024년 4월 15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독도박물관 별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 그리고 해녀"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의 문화교류 및 공동학술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시로 2023년 해녀박물관에서 1차 공동기획전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독도 그리고 해녀"전시는 울릉도 및 독도로 출어한 해녀들의 역사와 활동내역, 조업방식의 변화 등 울릉도에 적응해가는 제주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